

한국의 고대 초원로 연구 성과와 그 의미*

정재훈**

국문초록

본고는 고대 초원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역사가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초원길에 대한 성과를 학문 분야별로 나눠 정리, 소개하려 한 것이다. 먼저 고고학과 미술사학적 측면의 연구는 선사시대부터 역사 시대 초기까지 남아 있는 다양한 유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고대사의 문화 원류 이해 단서를 찾고자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교섭사적 연구나 비교학적 관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초원길 문화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관심은 여전히 한민족의 원류 내지 그의 문화적 기원, 그리고 이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 즉 ‘관계’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활발한 발굴 성과에 기초한 고고학 분야가 관련 연구의 주류를 형성한 것에 비해 미술사 분야의 경우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사막길에 비해 관심이 더욱 적은 편이라 향후 많은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향후 보다 많은 연구의 확장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려면 초원에서 전개된 고대 유목제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세계사상에서 초원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접근 역시 여전히 시기적 편중이 심하다. 또한 중국사에서 벗어나 세계사 속에서 초원에서 전개된 유목제국사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더욱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자가 현저히 적은 것은 이 분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다만 한문사료가 아니라 현지 사료에 기초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유목제국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고무적이다. 향후 이를 보다 발전시키려면 한국 고대 문화의 원류를 확인하려는 관심 정도에 치우친 기존의 접근을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초원에서 전개된 고대 유목제국사의 역할이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주제어] 고대 유목제국, 문화 교류, 초원로, 실크로드, 유목사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객관적 접근을 모색한 역사적 접근 |
| II. ‘관계’ 지향적 고고·미술사적 접근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30일 개최되었던 제48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 nomad123@gnu.ac.kr

I. 머리말

동·서 문명의 교류를 논할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실크로드(Silk Road 또는 Silk Route)’이다. 이것은 보통 비단길(絲綢之路, 絹の路)이라고도 번역되나 현재는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을 서방으로 운반했던 길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동·서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도 설명되고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노선은 먼저 중국 河西回廊을 거쳐 지금 동서투르크스탄의 사막지대에 점점이 놓여 있는 오아시스를 따라 파미르를 넘어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지나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도로, 이란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길인 사막길(오아시스길)이었다. 이것은 20세기 초 “대탐험”의 열풍 속에서 이에 대한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것과 관련되었다.

이후 ‘실크로드’라고 명명된 개념에 대한 연구가 동서 교류라는 관점에서 많은 축적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 바다(지중해, 인도양을 거쳐 중국에 이르는 해양로)와 초원(유럽 초원으로부터 몽골 초원에 이르는 길로 유목민들의 활동 무대)만이 아니라 산악(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지를 넘는 산악로)과 밀림(버마에서 중국 雲南과 四川으로 가는 西南路) 등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확장했다. 그 중에서 실크로드를 대표하는 사막길과 함께 바닷길과 초원길은 최근 동서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幹線으로 설명되고 있다.¹⁾

이 중에서 초원길은 유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 무대였다. 이곳은 만주와 중국의 화북 일부, 그리고 몽골리아를 거쳐 시베리아의 타이가 지대 남부에 위치한 북위 50도 정도의 스텝(초원)을 지나 아랄 해, 카스피 해, 흑 해 북방의 남러시아 초원을 지나 헝가리의 푸스타 초원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곳에서는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가장 짧은 길의 하나로서 선사시대 이래 가장 오랜 동안 문화의 교류를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한 흔적들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존 연구를 검토해보면 다른 중요 간선인 사막길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것은 20세기 초부터 오아시스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원을 무대로 전개된 유목사에 대한 문명사관에 입각한 편견만이 아니라 그의 역사적 역할 역시 특정 시기 즉 고대의 유물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과 미술사적 접근에 집중했던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초원길 역시 선사시대부터 역사 시대 초기까지 남아 있는 다양한 유물들의 존재가 초원길이 한국 고사대사의 문화 원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의 하나로 주목되면서 관련한 문화 교류가 강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초원길은 이런 측면에서만 그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 초원은 세계사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목제국의 무대였다. 이것은 초원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정치, 경제적 의미 부여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1990년대 이후 초원길 관련

1)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silkroad/> 검색일자 2019년 4월 30일). 실크로드 개념의 형성과 그 이후 이해 방식에 대해서는 劉進寶, 「「絲綢之路」概念的形及其在中國的傳播」, 『中國社會科學』 2018-11을 참조.

한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해보려고 한다. 이것은 몽골제국 이전시기 초원길을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 전개 과정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존 한국 연구 성과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기도 하다.

II. ‘관계’ 지향적 고고·미술사적 접근

초원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촉발된 것은 199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스키타이 황금 유물 전시회’였다. 그 이전엔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 이에 접근이 어려웠다가 이 무렵 비로소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와 몽골 등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초원에 대한 과거의 막연했던 관심이 비로소 연구자만이 아니라 대중적 측면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었다.²⁾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네스코가 주도한 “실크로드 국제 학술탐사”가 시작되었고, 1991년에 초원로 조사에 임효제(고고), 이인숙(미술), 전인평(음악) 등이 한국대표로 참가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었다.³⁾

그 이후 선도적으로 고고학의 김병모와 미술사의 권영필이 유라시아 탐사(조선일보사 주관)를 추진했다. 이런 현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복식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어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알타이 문명전’은 파지리크 고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남시베리아의 고분과 신라의 적석목곽분을 비교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이를 통해 국내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1993년에 창립된 ‘중앙아시아연구회’가 1996년 ‘중앙아시아학회’라는 정식 학회로 발전했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학제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 당시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과거와 달리 초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 역시 이런 모임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⁵⁾ 이후 초원로에 대한 탐구는 고고학 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청동기, 황금기, 고분, 불교, 복식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고대 문화의 원류를 중앙아시아와 연결해 찾아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먼저 초원길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몽골 초원이었다. 몽골은 선사시대 이래 초원의 중요한 무대였고, 우리의 역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지 방문이 가능하게 된 몽골 지역에 대해 답사는 1990년에 창립된 ‘한국 몽골비사학회’(이후에 ‘한국몽골학회’로 개편)가 최초였다. 본 학회는 1991년 동몽골 수흐바타르 아이막의 다리강가지역 일대 학술 답사를 했다. 이것은 한국 고대사와의 관

2) 국립중앙박물관,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스키타이 황금』, 1991.

3) UNESCO, 2008, *Integral study of the Silk Roads: Roads of Dialogue*, UNESCO.

4) 국립중앙박물관, 『알타이 문명전』, 1995.

5) 1993년 창립된 중앙아시아 연구회(창립멤버 : 권영필, 김호동, 김선호, 남상공, 민병훈, 박원길, 송향근, 유원수, 이개석, 이인숙, 이재성, 이희수, 임영애, 전인평, 정수일, 최한우 외)가 중심이 되어 1996년에 중앙아시아학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2001년도 『중앙아시아연구』 제6호에서 「20세기 중앙아시아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서 3편의 논고, 2015년도 『중앙아시아연구』 제20-2호에서 「한국의 중앙아시아학 20년」에서 7편의 논고를 통해 연구 성과를 회고하고 전망한 바 있다.

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몽골에 대한 학술 답사의 시작이었다는 점에서 우리학계의 초기 관심을 잘 보여준다.

몽골에 대한 본격적 학술 발굴조사는 1992년에 한몽 학술조사연구협회가 한국조사단으로 처음 실시했다. 1995년까지 헨티 아이막 칭헤르만달 솜의 오스틴덴지 신석기유적, 오스틴암 판석묘, 투브 아이막의 바론 하이르한의 적석무덤을 발굴 조사하였다. 이후 수흐바타르 아이막 다리강가 솜의 골샤르, 슈팀, 토이룸, 오르혼 솜 찬탄발가스에 대해 시굴 조사를 벌였는데, 이것은 이후 조사의 초석이 되었다.⁶⁾

이후 몽골에 대한 본격적 고고학적 조사 작업은 1997년 국립중앙박물관 주도로 본격화될 수 있었다. 초기 한국과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춘 동몽골에 대한 조사에서 이후 초원의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흉노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2018년 관련 공동연구 20주년을 기념하는 <칸의 제국 몽골> 특별전으로 이어지는 등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공동 협력 사업 중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⁷⁾

이 사업은 처음에 고대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고대 유목제국을 건설해 초원의 문화 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匈奴에 다양한 접근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⁸⁾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도한 발굴을 통해 당시 흉노와 한, 흉노와 중앙아시아, 나아가 서방과의 다양한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이런 풍성한 성과는 2002년 <몽골유적조사 5년>의 출간과⁹⁾ 2009년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의 전시를 서울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게 하기도 했고, 올해에도 계속 발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⁰⁾ 또한 이것은 이후 2011년에 울란바토르에서 <특별전-흉노의 보물> 전시로 이어졌으며 계속 후속 사업이 진행되어¹¹⁾ 『몽골흉노무덤 자료집성』으로 정리되었다.¹²⁾ 나아가 흉노 고분에서 발굴 조사만이 아니라 2013년부터는 이 시기 궁궐터로 추정된 고아 도브에 대한 발굴도 시도했다. 흉노 시기 城址의 존재 확인은 그의 유목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확인시켜주는 정주와 유목의 혼용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학 연구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2008년부터 석기와 청동기시대 판석묘를 발굴했다. 이후 ‘라상하드 석기 발굴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라상하드 제5문화층에서 4,298개의 석기를 수습하고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점을 추정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¹³⁾ 또한 단국대학교 북방문화연구소 역시 ‘동몽골과 북방문화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해 2009~2011년 수흐바타르 아이막의 ‘와란 합찰’ 유적에서 무덤 3기를 발굴하고 인골, 목걸이, 토기파편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¹⁴⁾

6)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아카데미, 『한몽공동학술연구』 1, 2, 3, 1993~1994.

7) 국립중앙박물관 편, 『칸의 제국 몽골』, 2018.

8) 윤형원, 『한-몽 공동학술조사 10년의 발자취』, 『초원의 대제국 흉노』, 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울란바토르), 국립중앙박물관, 2008.

9) 국립중앙박물관, 『몽골유적조사 5년』 전시도록(서울·울란바토르), 2002.

10) 국립중앙박물관,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전시도록(서울·울란바토르), 2009.

11) G. Eregzen, *Treasures of the Xiongnu*, The National Museum of Mongolian History, 2011.

12) 국립중앙박물관 편, 『몽골 흉노 무덤 자료집성』, 2008.

13) 이선복·양시은·에릭젠·군친수렌·바즈르구르, 『몽골 에르드네 판석묘 유적』, 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14) 단국대학교 북방문화연구소, 『2009~2010년 동몽골 역사유적 조사보고서』,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엔 2006년 한몽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맺고 난 다음 2009년부터 ‘문화유산 연구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은 2013년까지 이어져 고비알타이 아이막 18개 속 480개소의 고고 유적에서 3,969기의 개별유구들을 찾아내고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것은 다양한 유적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향후 계속된 작업의 자극제가 되었다.¹⁵⁾ 이런 노력의 결과 2018년 11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몽골 역사학고고학연구소 공동연구 10주년 기념해 기념해 〈2018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조사 기관들이 최신 조사 성과 발표 및 자료를 공유하고, 몽골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등 해외 주요 연구 기관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상호 학술 교류를 했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각 지역과 한반도 내에 존재했던 積石系 무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고대 각 지역 간 문화교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것은 몽골 알타이 산악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파지리크 고분과 국내 적석계 무덤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인데, 몽골 바얀울기 아이막에 있는 시빗 하이르한 고분군(해발 2,500m) 1호와 2호 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몽골 알타이뿐만 아니라, 사카 문화기의 고분 등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적석계 무덤 문화권에 관한 공동연구 역시 진행해 아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려고 했다.¹⁶⁾

이와 함께 몽골 초원과 연결된 카자흐스탄 초원에 대해서도 최근 고고 유적 및 발굴 유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카자흐스탄 카타르토베 고분군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곳은 알타이 산맥과 天山 산맥 사이에 자리하며, ‘초원의 스키타이’라고 하는 ‘사카문화’의 전성기(기원전 5~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초원 유목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에 대해 물리 탐사와 드론을 통해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고분을 10여기 이상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고분 주위에서 토성의 흔적을 발견하고 나아가 고분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¹⁷⁾

이런 고고학적 접근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초원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에 대해 미술사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계림로에서 발견된 보검과 비슷한 유물이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출토지가 카자흐스탄 보로보에 호수 근처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비교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합동으로 〈한국 고대 미술문화유산 네트워크 복원〉이라는 사업을 벌였다. 미술공예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2018년 『카자흐스탄의 황금문화』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양국의 학자들이 카자흐스탄의 고대 초원 문화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공동연구였다.¹⁸⁾ 그 사전 작업으로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출간된 바이파코프의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의 번역, 출간은 초원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15) 소재운, 「몽골 고비알타이 문화유적 분포 현황조사 성과」, 『2013 Asia Archaeology』,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의 문화유산 I (2010)』, 『몽골의 문화유산 II (2011)』, 『몽골의 문화유산 III (2012)』, 『몽골의 문화유산 IV (2014)』, 『몽골의 문화유산 V (2015)』, 『몽골의 문화유산 VI (2016)』.

16)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유라시아 적석계 무덤 발굴조사 성과』, 2016.

17)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발굴 성과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2017년 10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회 자료집인 『2017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최신 발굴자료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 문화』에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18) 국립문화재연구소·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한국·카자흐스탄 공동 조사연구보고서 초원의 황금문화』, 2018.

심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¹⁹⁾

이상에서 진행된 외국과의 공동 작업은 아직 일부 유물에 한정되었으며 또한 중앙아시아 초원을 중심으로 문화가 어떻게 연계되어 교류되었는가 하는 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에 아직 부족하다. 향후 더 발전적 연구가 기대되지만 관련해 몽골 초원지역의 고대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다. 현재 2019년에 출간을 예정으로 몽골 흉노 관련 금속 유물에 대한 조사와 공동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공동 연구는 향후 국가 간의 문화 교류에 대한 시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²⁰⁾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고대 유적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먼저 2009년에 발라시의 살비르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국내 4개 대학과 6개 발굴조사 법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초원길의 문화와 관련해 2014년에 추진된 디자흐리 지역의 쿠르간 발굴조사가 있기도 했다.²¹⁾ 이것 모두 초원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벨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 문화와의 관련성을 추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초원 고대 문화에 대한 미술사적 측면의 접근은 주로 암각화에 집중되었다. 한국에도 많이 남아 있는 암각화에 대한 관심이 초원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주도로 ‘한-몽 바위그림 연구’ 프로젝트로 몽골에 대한 조사 성과의 출간은 그의 시작이었다.²²⁾ 이것은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친 문화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선사시대 초원 문화에 대한 심화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암각화 조사로 확대되어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까지 확장되었다.²³⁾ 하지만 이것 역시 일부 지역에 한정된 조사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많은 조사를 통한 자료의 집성과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초원에 대한 미술사 분야에서의 접근은 6~8세기 돌궐시기에 발견된 바양노르에 위치한 벽화묘와 인근의 僕固乙突朔野 벽화묘 발굴 성과와 관련한 연구, 그리고 이 무렵 석인과 제사 유적 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²⁴⁾ 이것은 국내 최초의 연구이고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되나 아직은 자료를 집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유물과 유적에 대한 체계적 분석 작업을 통해 초원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까지 30여년 가까이 초원길에 대해 많은 고고학적인 조사와 자료 정리가 있

19) 카를 바이파코프,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20) 본 연구진 중에서 5명의 몽골학자들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청으로 몽골 흉노 유적·유물의 최신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동양미술사학회·중앙아시아학회(편), 『2019 몽골 연구자 초청 학술 강연: 몽골 흉노 유적·유물의 최신 연구현황』, 2019. 4. 26.).

21) 권오영,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카타콤 조사 성과』, 『2016년도 (사)중앙아시아학회 동계워크샵 자료집』, 2016.

22) 동북아역사재단·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고비알타이의 암각화』, 동북아역사재단, 2008; 『몽골 서북부의 암각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23)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북아역사재단·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고고학연구소, 『카자흐스탄의 바위그림』, 동북아역사재단, 2011.

24) 박아림, 「몽골에서 최근 발굴된 돌궐시대 벽화고분의 소개」,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박아림, 「몽골 불간 아이막 바양노르 숲 울란 헤렘 벽화묘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19: 2, 2014; 박아림·L. 에르텐볼드·넬시 S. 스타인하트, 「몽골 바양노르 벽화묘와 복고울돌묘 출토 용과 비잔틴 금화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22: 1, 2017; 박아림, 「몽골 초원의 6~8세기 미술」, 『중앙아시아연구』 23: 2, 2018.

었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계속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석기, 청동기 시대 고분, 암각화 등의 다양한 문화 요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방면에 걸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한국 고대 문화와의 관련성에 치우쳐져 있고, 이해 정도도 외국의 기존 연구를 수용하는 정도의 단계 내지는 자료를 집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의 고대 초원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러시아(구소련)의 성과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²⁵⁾ 2016년 10월에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과²⁶⁾ 서울대학교 역사학연구소가 11월에 개최한 <중앙유라시아 북부 유목국가의 형성, 발전 및 문화교류>에서 투바 등지의 시베리아 지역 고분 발굴 성과가 현지 연구자를 통해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관심은 시베리아로 확장될 수 있었다.²⁷⁾ 또한 시베리아 적석총의 구조와 부장된 다양한 금속 유물의 특성이 우리의 고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우리 학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이에 대한 본격적 조사가 2018년부터 시작될 수 있었지만 아직 관련한 성과는 없다. 이후 조사와 연구가 본격화되면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과거 흉노시기 무덤 발굴에 집중하다가 주거 유적이거나 성지 생산유적 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등 관심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것은 이후 유물과 유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상호문화 비교 연구, 자료집성과 종합적 고찰,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더욱이 이런 비교 연구 내지는 외국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흉노에 대한 접근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최근엔 집성되었다.²⁹⁾ 이것은 한국 고대 문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 원류를 추적하려고 했던 우리

25) 초원길과 관련된 발굴 및 연구 성과는 구소련 내지는 러시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2000년대 이후 강인옥이 번역해 소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앙문화재연구원(편), 『북방고고학개론』(진인진, 2018)의 출간은 러시아와 몽골에서 기원한 초원의 유목경제에 기초한 문화구분에 따라 기원전 35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정도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한 성과이다. 이것은 초원 선사 고고학과 함께 한반도와의 관련성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망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6) 자이놀라 사마체프, 「카자흐스탄 고고유적 최신 발굴조사 성과」; 변영환, 「몽골 파지리크 고분 발굴조사 성과」; 콘스탄틴 추구노프, 「아르잔-2 고분 발굴조사와 황금유물」, 린메이춘,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아 강 북쪽의 康居왕정』,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 -』, 2016.

27) 아나톨리 로베르트비치 칸포르비치, 「북카프카스 흑해 북안 스키타이 시대 동물양식의 사회적 양상」; 콘스탄틴 추구노프, 「중앙아시아의 초기 유목민: 기원전 1000년기 초 유목문화 형성(엘리트 복합체들의 유물을 통해)」; 겔렉도르지 에렉젠, 「흉노무덤 출토 외래계 유물에 대하여」; 김중일,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교류」; 정재훈, 「돌궐 유목국가의 형성과 문화교류」; 손재현,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시 디자흐르 쿠르간 발굴성과」; 이혜연, 「카자흐스탄 오르닉2-1호 쿠르간 발굴성과」; 임동재, 「몽골 치헤르틴 저 흉노고분 발굴조사」,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 - 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 2016.

28) 윤형원, 「광활한 몽골초원과 흉노인의 생존」, 『중앙아시아연구』 제15호 2010에서 흉노시기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

29) 중앙문화재연구원(편), 『흉노 고고학 개론』(진인진, 2018)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9명 학자들이 합동으로 20여년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한 흉노 관련 발굴 및 그동안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흉노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논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형원, 「흉노 고고학의 성과」, 「유목문화의 전신」; G. 에렉젠, 「흉노의 무덤」, 「흉노의 국제 교류」; 김병준, 『史記』 「匈奴列傳」의 서사 구조 - 原匈奴 개념을 위한 문헌자료의 검토; 주경미, 「흉노인의 예술 - 초원에 피어난 유목 예술의 정수」; 장은정, 「흉노의 금속기 - 강력한 기마군단의 잔상과 유목생활의 필수품」; N. 바트블드, 「흉노의 암각화」; Ch. 유를 - 에르테네, 「흉노의 도시유적」; P. 알다르무흐, 「흉노의 토기와 기와」;

학계의 접근 태도를 일부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결국 객관적 측면에서 거대 유목제국 흉노를 중심으로 한 초원의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화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초원이 주변의 정주 문명 지역과 연결되면서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흉노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비해 다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거의 없는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이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외국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외국의 성과를 소개하는 정도의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향후에는 일부 활발한 고고학적인 접근만 아니라 미술사와 역사학 등 학제적 연구를 적극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Ⅲ. 객관적 접근을 모색한 역사적 접근

초원길을 주도했던 고대 유목제국에 대한 역사학적 관심은 많지 않지만 과거부터 일정 정도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바 있다.³⁰⁾ 그의 중요한 대상은 기원전 3세기 흉노가 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 초원이 문화 교류를 촉발하게 된 다음 약 10세기에 이르는 범위가 중요 대상이었다. 그 중에 선도적 흉노에 대한 연구는 고대 유목제국으로서 그 문화 교류에 대한 역할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는데, 고고학적 연구가 압도적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공유하면서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움직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부경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추진한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연구 프로젝트는 고고학적 연구가 처음으로 역사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흉노학’³¹⁾ 정립을 위한 토대 구축 시도였다. 그 성과는 2010년 (사)중앙아시아학회 개최한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국제학술대회>와 2012년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시작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 그리고 보존과학자만 아니라 러시아와 몽골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등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보기 위해 노력했다.³²⁾

Ch. 아마르투스, 「흉노의 산업생산」 등이다.

30) 초원길의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은 다음의 정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김호동, 「韓國 內陸아시아史 研究의 어제와 오늘」, 『中央아시아研究會會報』 1, 1993; 김호동, 「최근 30년(1985~2015) 중앙아시아사 및 요·금·원사 연구의 동향과 특징」, 『東洋史學研究』 133, 동양사학회, 2015; 김장구, 「한국에서 中央유라시아史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사)중앙아시아학회 『중앙아시아연구』를 중심으로 -」, 『중앙아시아연구』 20: 2, 2015. 본고는 이를 참고했다.

31) ‘흉노학’의 개념 규정은 흉노 유목제국시기를 전후로 초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대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직 학술적으로 하나의 개념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학제적 입장에서 흉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자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강인옥, 「흉노와 동아시아-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사)중앙아시아학회·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2010; 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2012.

그럼에도 이것 역시 고고학적 입장이 주를 이뤄 아직 역사적 측면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숙제를 남겼다.³³⁾ 특히 역사학적 접근과 유물과 유적에 기초한 고고 내지는 미술사적 접근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소위 ‘흉노학’ 연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학제간의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한 중국 사료에 기초한 역사학적 접근에서 사료 문제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더욱이 광범위한 범위에 존재했던 흉노 유목제국이 남긴 유산을 어느 한 국가의 입장에 따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범주 속에서 그의 위상과 문화적 특성에 맞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도 중요한 고민거리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업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흉노사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는 거의 없다. 아직까지 단지 외국의 연구 성과를 번역해 소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해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³⁴⁾ 이것은 우리나라의 척박한 연구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흉노사 자체가 중국 중심의 기록과 출토 유물 간의 간극으로 인해 체계적 저술이 어려웠던 것과도 관계가 깊다. 실제 외국에서도 제대로 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다. 기존의 연구는 한문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고대 유목국가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시 거대 제국 漢朝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찾아야할 것이다.

또한 흉노 이후에 10세기까지 초원을 무대로 유목제국을 세웠던 고대 유목제국 돌궐, 위구르 등에 대해 역사학적 접근이 일부 있었으나 고고학적 접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 중에서 관련된 것을 보면 과거 위구르 성채였다가 거란 시기에 다시 재건되어 사용된 친톨고이 유적에 대한 조사 정도였다.³⁵⁾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거란 시기에 이곳으로 발해 주민들이 이주되면서 온돌을 사용한 흔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데,³⁶⁾ 이것은 여전히 한국에서 고대 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초원 그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 자국 역사와 관련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우리만의 입장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돌궐 유적 발굴과 보호에 터키 정부(외교부 기구인 TIKA가 주도)가 적극 역할을 추진해 고대 투르크 비문인 켈 테긴과 빌게 카간 비문의 보호를 위한 오르콘 박물관 건립한 것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비문 관련 자료 정리에 치중한 것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⁷⁾

반면 독일에서 위구르의 수도였던 카라발가순을, 러시아에서 위구르시기의 다른 성채를 발굴한 것은 객관

33) 에릭젠·양시은, 『흉노』, 진인진, 2017의 경우엔 최근 흉노 고본에서 발굴한 유물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흉노 역사의 전개를 정리하고 있다.

34) 르네 그루세(지), 김호동·유원수·정재훈(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니콜라 디코스모(지), 이재정(역),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2005; 사와다 이사오(지), 김숙경(역), 『흉노 : 지금은 사라진 고대 유목국가 이야기』, 아이필드, 2007; 장진웨이(지), 남은숙(역), 『흉노제국 이야기 - 유라시아 대륙 양단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흉노를 찾아서』, 아이필드, 2010; 오다니 나카오(지), 민혜홍(역), 『대월지, 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아이필드, 2008.

35) 국립중앙박물관 편, 『몽골의 요나라 도성, 친톨고이 성지』, 국립중앙박물관, 2012.

36) 동부 몽골 契丹과 奚의 원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문이 있다(李在成, 『古代 東蒙古史 研究』, 법민문화사, 1996).

37) (투르크 비문 사이트) <http://bitig.org/?lang=e>

적 측면에서 그의 역사성과 문화 교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독일과 러시아는 장기간에 걸쳐 한 유적에 대한 체계적 발굴을 시도했다. 또한 몽골 하르호린에 과거 몽골제국의 수도였던 카라코룸 주변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일본에서 박물관을 건립해 운영하게 지원한 것도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 비록 원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세계 문화유산 보호에 우리 역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의 선례를 참고해 향후 몽골 등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르게 우리 중심적 관점 내지는 중국사의 연장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려는 입장에서 흉노부터 그 이후 시기의 초원 유목제국에 대한 기초적 접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흉노 이후에 초원을 지배한 유목제국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 자료가 된 관련 사료를 번역한 것은 가장 주목되는 성과였다.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 주도의 中國 正史 外國傳 번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이 중 1단계 사업이 고대 유목제국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史記』 匈奴傳부터 『新五代史』 回鶻傳까지 초원의 고대 유목제국 관련 열전을 국역을 해서 12권으로 번역되었다.³⁸⁾

이것은 중국 사료의 일방적 입장을 교정하고 초원의 유목민에 대한 좀 더 객관적 이해를 위한 한국인 나름의 새로운 번역의 시도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기존 일본의 번역과 달리 北狄傳만 아니라 西域傳을 같이 번역해 초원과 늘 공생 관계를 갖고 있던 오아시스의 역사 전개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이점은 문화 교류에서 초원의 유목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중국 정사의 외국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해제 작업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기초 자료에 대한 역주 내지는 정리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세기 후반 흉노가 약화된 이후 초원은 일시 鮮卑가 활동하지만 4세기 이후 북중국과 하나의 세계로 작동하게 되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五胡十六國時代와 北魏시기 초원의 혼란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오아시스의 역할은 활발하게 되었다. 이 시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불교 등의 다양한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막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교류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나 이 무렵 초원의 상황 역시 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 무렵 초원의 역사 전개를 중국사의 범주에 넣어 이해하려고 했던 까닭에 그 자체에 대한 별다른 연구가 없다. 특히 몽골 초원에서 북위와 대립했던 미완의 유목 제국 柔然에 대해서도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다.³⁹⁾

한편 6세기 중반 초원이 다시 통합되는 계기가 된 돌궐 유목제국(552~745)의 등장은 문화 교류를 다시금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돌궐은 초원을 통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을 연결하는 등 세계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거대한 유목제국의 등장으로 인해 교류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해 돌궐 자신이 남긴 고대 투르크 문자

38)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정사 외국전』 1~12권,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1. 2단계 사업을 통해 宋史부터 明史까지의 외국전이 12권으로 번역되었다.

39) 우덕찬은 터키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柔然 즉 아바르에 대한 박사논문을 작성하고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다(Duck Chan WOO, A Study on the Nomadic Empire of Juan-juan(Juan-juan'lar), 1995. 01.).

자료와 한문으로 된 자료를 연결시켜 유목제국의 지배집단인 阿史那氏가 건국 이전 형성될 때부터 이후 발전, 소멸되는 과정을 계기적으로 다뤄 유목제국으로서의 성격을 밝힌 것은 국내의 연구 환경을 고려해볼 때 주목된다.⁴⁰⁾ 특히 유목제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 교류의 양상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함께 몽골제국의 원형으로서 유목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돌궐사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대 투르크 비문 자료에 대한 접근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 먼저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도했지만 금석문 획득의 관점에서 몽골에 산재한 비문 및 명문에 대한 탁본 작업을 한 다음 전시회를 개최했다.⁴¹⁾ 따라서 이것 자체가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 조사와 체계적인 보고서를 만들었던 일본의 움직임과 비교해보면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한 것은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⁴²⁾

돌궐을 이어 8세기 중반 초원을 통합하고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위구르 유목제국(744~840)에 대한 연구 역시 고대 투르크 문자 자료와 함께 한문 자료를 연결시켜 유목제국의 구조와 그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³⁾ 이것은 위구르 유목제국에 대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으로서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그의 성격에 대한 이해 시도였다. 또한 이것은 초원을 무대로 교류의 주체로서 위구르가 유목제국을 운영하며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최초의 관련 단행본이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역사 전개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던 고대 유목제국사에 대해 정리가 이루어진 것은 불모지였던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분야에 연구자가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활발한 접근이 없다는 점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후엔 지금보다 더 연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국내 현실은 쉽지 않다. 실제 외국 학계에도 관련 분야의 연구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유목사를 기초로 한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소수이다.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도 관심에 비해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마르칸트에 남아 있는 鳥羽冠을 쓴 사절에 대한 국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⁴⁴⁾ 당시 초원길을 지배하고 이를 매개했던 돌궐의 역할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⁴⁵⁾ 즉 기존에 우리의 고대사 전개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동서 교류의 관점에서 초원의 역할을 설명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접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대 유목제국의 사적 전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돌궐만이 아니라 위구르의 경우처럼 초원에 성채를 건설해 교류를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 거란이 수용한 다음 결국 몽골제국의 체계로 흡수되면서 크게 발전해 이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40) 정재훈, 『돌궐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2016.

4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직지성보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몽골의 암각화·사슴돌·비문 탁본』, 2008.

42) 이용성, 『돌궐 비문 연구』, 제이앤씨, 2008.

43)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화과지성사, 2005.

44) 권영필 외,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의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

45) 이재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은 그의 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초원길의 역할과 그 의미를 세계사적 측면에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통해 결국 동아시아와 하나의 세계로 연동되었던 유라시아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각을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유목제국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우리를 포함한 세계사의 전개와 교류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고대 유목제국들의 활동 무대로서 초원길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고대사와의 ‘관계’가 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독자적 역사 단위로서 이해가 된 초원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내의 관심은 주로 한민족의 원류 내지 그의 문화적 기원, 그리고 이를 비교하려는 접근이 많았다.⁴⁶⁾ 따라서 선사시대와 흉노시대의 활발한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고고학적 연구 역시 비교학적 관점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또한 초원길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설명 역시 시기적 편중이 심하고 연구도 많지 않다. 현재 몽골제국 시기는 한국의 고려시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교류가 활발하게 되며 세계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⁴⁷⁾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전 시기는 연구가 활발한 편도 아니고 한문사료에 의존함에 따라 기존 연구는 중국사의 연장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에서 일부가 초원지역의 원 자료를 통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아직도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향후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가 초원길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려면 고대 유목제국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목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동반된 다른 분야의 학문적 발전 역시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초원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함으로써 중국사에서 벗어나 세계사 속에서 초원에서 전개된 유목제국사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이를 보다 발전시켜 우리의 입장에서 초원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 고대사와의 ‘관계’ 강조도 중요하나 초원길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는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인데, 향후 이에 대한 많은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만 한국 고대 문화의 원류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재의 관심에 치우친 기존 우리의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초원에서 전개된 고대 유목제국사와 동서교류사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제삼의 시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46) 사재동, 『실크로드와 韓國文化의 探索』, 대전: 中央人文社, 2001.

47) 스키야마 마사아키(저), 임대희·김장구·양영우(공역),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1999;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48) 스키야마 마사아키(저), 이경택(역),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시루, 2013.

〈참고문헌〉

〈연구서〉

- Eregzen, G. *Treasures of the Xiongnu*, The National Museum of Mongolian History, 2011.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직지정보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몽골의 암각화·사슴돌·비문 탁본』,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2017 Asian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최신 발굴자료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 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IV』,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V』,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몽골의 문화유산 V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 국립문화재연구소(편), 『중앙유라시아 적석계 무덤 발굴조사 성과』, 2016.
- 국립문화재연구소·동양미술사학회·중앙아시아학회(편), 『2019 몽골 연구자 초청 학술 강연: 몽골 흉노 유적·유물의 최신 연구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 국립문화재연구소·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한국·카자흐스탄 공동 조사연구보고서 초원의 황금문화』, 2018.
- 국립중앙박물관(편), 『몽골 흉노 무덤 자료집성』 2008.
- 국립중앙박물관(편), 『몽골의 요나라 도성, 친톨고이 성지』, 국립중앙박물관, 2012.
- 국립중앙박물관(편), 『간의 제국 몽골』 2018.
- 국립중앙박물관(편),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전시도록(서울·울란바토르), 2009.
- 국립중앙박물관(편), 『몽골유적조사 5년』 전시도록(서울·울란바토르), 2002.
- 국립중앙박물관(편),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스키타이 황금』, 1991.
- 국립중앙박물관(편), 『알타이 문명전』, 1995.
- 국립중앙박물관·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편),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2012.
- 권영필 외,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의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니콜라 디코스모(저), 이재정(역),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2005.
- 단국대학교 북방문화연구소(편), 『2009~2010년 동몽골 역사유적 조사보고서』, 2013.
-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정사 외국전』 1~12권,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1.
-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편),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동북아역사재단, 2007.

- 동북아역사재단·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편), 『몽골 고비알타이의 암각화』,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동북아역사재단·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편), 『몽골 서북부의 암각화』,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동북아역사재단·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고고학연구소(편), 『카자흐스탄의 바위그림』,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르네 그루세(저), 김호동·유원수·정재훈(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 사와다 이사오(저), 김숙경(역), 『흉노 : 지금은 사라진 고대 유목국가 이야기』, 아이필드, 2007.
- 사재동, 『실크로드와 韓國文化의 探索』, 대전: 中央人文社, 2001.
- 스기야마 마사아키(저), 이경덕(역),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시루, 2013.
- 스기야마 마사아키(저), 임대희·김장구·양영우(공역), 『몽골세계제국』, 신서원, 1999;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 에렉젠·양시은, 『흉노』, 진인진, 2017.
- 오다니 나카오(저), 민혜홍(역), 『대월지, 중앙아시아의 수수께끼 민족을 찾아서』, 아이필드, 2008.
- 이선복·양시은·에렉젠·군친수렌·바즈르구르, 『몽골 에르드네 판석묘 유적』, 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 이용성, 『돌궐 비문 연구』, 제이앤씨, 2008.
- 이재성, 『古代 東蒙古史 研究』, 법인문화사, 1996.
- 이재성,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소나무, 2018.
- 장진웨이(저), 남은숙(역), 『흉노제국 이야기 - 유라시아 대륙 양단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흉노를 찾아서』, 아이필드, 2010.
- 정재훈, 『돌궐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2016.
-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화과지성사, 2005.
- 중앙문화재연구원(편), 『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2018.
- 중앙문화재연구원(편), 『흉노 고고학 개론』, 진인진, 2018.
- 카를 바이파코프,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아카데미, 『한몽공동학술연구』 1, 2, 3, 1993~1994.

〈연구논문〉

- 강인욱, 「흉노와 동아시아 -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겸하여」, (사)중앙아시아학회·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아시아 고대문화 속의 흉노』, 2010.
- 겔렉도르지 에렉젠, 「흉노무덤 출토 외래계 유물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 - 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권오영,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카터콧 조사 성과」, 『2016년도 (사)중앙아시아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2016.
- 김장구, 「한국에서 中央유라시아史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사)중앙아시아학회 『중앙아시아연구』를 중심으로 -」,

- 『중앙아시아연구』 20: 2, 2015.
- 김종일,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의 공간적 분포와 문화교류」,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김호동, 「최근 30년(1985~2015) 중앙아시아사 및 요·금·원사 연구의 동향과 특징」, 『東洋史學研究』 133, 동양사학회, 2015.
- 김호동, 「韓國 內陸아시아史 研究의 어제와 오늘」, 『中央아시아研究會會報』 1, 1993.
- 린메이춘, 「중앙아시아 시르다리아 강 북쪽의 康居왕정」,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 2016.
- 박아림, 「몽골에서 최근 발굴된 돌궐시대 벽화고분의 소개」, 『고구려발해연구』 43, 2012.
- 박아림, 「몽골 불간 아이막 바양노르 슝 울란 헤렘 벽화묘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19: 2, 2014.
- 박아림 · L. 에르텐볼드 · 낸시 S. 스타인하트, 「몽골 바양노르 벽화묘와 복고을돌묘 출토 용과 비잔틴 금화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22: 1, 2017.
- 박아림, 「몽골 초원의 6~8세기 미술」 『중앙아시아연구』 23-2, 2018.
- 변영환, 「몽골 파지리크 고분 발굴조사 성과」,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 2016.
- 소재운, 「몽골 고비알타이 문화유적 분포 현황조사 성과」, 『2013 Asia Archaeology』, 2013.
- 손재현,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시 디자흐르 쿠르간 발굴성과」,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아나톨리 로베르토티치 깐뜨르비치, 「북카프카스 흑해 북안 스키타이 시대 동물양식의 사회적 양상」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윤형원, 「광활한 몽골초원과 흉노인의 생존」,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 윤형원, 「한-몽 공동학술조사 10년의 발자취」, 『초원의 대제국 흉노』, 한-몽 공동학술조사 1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울란바토르)』, 국립중앙박물관, 2008.
- 이혜연, 「카자흐스탄 오르닉2-1호 쿠르간 발굴성과」,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임동재, 「몽골 치헤르틴 저 흉노고분 발굴조사」,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자이놀라 사마체프, 「카자흐스탄 고고유적 최신 발굴조사 성과」,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 2016.
- 정재훈, 「돌궐 유목국가의 형성과 문화교류」,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교류-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2016.
- 콘스탄틴 추구노프, 「아르잔-2 고분 발굴조사와 황금유물」, 『(사)중앙아시아학회 창립 20주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중앙아시아 연구의 최신 성과와 전망 -, 2016.

콘스탄틴 추구노프, 「중앙아시아의 초기 유목민: 기원전 1000년기 초 유목문화 형성(엘리트 복합체들의 유물을 통해)」,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제7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국가와 문화 교류 - 한국 고대고분과 유라시아 네트워크 -, 2016.

劉進寶, 「「絲綢之路」 概念的形及其在中國的傳播」, 『中國社會科學』 2018-11.

* 이 논문은 2019년 5월 17일에 투고되어,
2019년 6월 17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7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7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Retrospects and Prospects of Korean Studies on the Ancient Steppe Route**

Jeong, Jaehun*

As an activity stage for ancient nomadic empires, steppe routes are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This is mainly because the relationship with Korean history was important. However, the studies on this topic was primarily done from a negotiating or comparative perspective. They were thus derived from efforts to reflect on it and to highlight his role later. Since then, studying to steppe routes has been made in various fields, allowing a balanced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nomadic imperial history, which has been developed on steppes in world history, away from Chinese history. This was to continue to understand in a more objective way despite relative difficulties.

The interests in Korean researchers remains strong in terms of the origins of the Korean people, their cultural origins, and their comparative approach. In this context, researches were actively carried out based on the vigorous excavation achievements of prehistoric and historic eras in archaeological aspects. It is also relatively minor in access to the cultural role of oasis routes. Therefore, understanding of ancient nomadic empire's history developed on the steppe is needed to gain a broader perspective on how Korean history had a relationship with steppe in world history.

In addition, the explanation of the historical role of steppe route in world history is also highly timely. It is also encouraging that recent access through raw materials has been made to overcome what has been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Chinese history due to studies relying on Chinese records. To further develop this in the future, access to the role of steppe routes is needed, and the cultivation of a new generation of academics who can make this possible. By doing so, we should overcome our current interest in identifying the origins of Korean ancient culture and take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history of ancient nomadic empires that developed on the Eurasian steppe.

[Key Words] Ancient Nomadic Empire, Exchanges of culture, Steppe route, Silk road, Nomadic history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